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3 Vol. 03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서 발급현황 및 개선방안



I. 조사배경

II. 이행성 보증서 발급 현황(2012-2022)

III. 종합의견



I. 조사 배경	1
II. 이행성 보증서 발급 현황(2012-2022)	1
1. 보증료율	2
2. 담보설정	8
III. 종합의견	10

I 조사 배경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서 발급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해외건설 보증지원 정책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총 16개 금융기관(보험사, 조합 포함)을 대상으로 자료를 격년주기로 요청하여 입수한 데이터 중, 실제 보증서(Bank Guarantee)를 발급한 10개 은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단 결측값을 제외한 총 15,326건의 보증발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11년간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건수 : 총 6,898건)

II 이행성 보증서 발급 현황(2012~2022)

- 2012~2022년 동안 국내은행에서 총 15,326건의 해외건설 관련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했고, 동 기간 평균 보증료율은 0.77%로 조사됨
 - 저유가 기조, 우리 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 제3국(터키, 인도 등) 건설기업의 강세로 우리기업 진출 기회 감소 등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2015년 660억불 → 2016년 282억불)하면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2016년 이후 ‘300억불 박스권’ 형성됨
 - 이에 따라 수주의 감소(진출업체 수 감소 등)가 보증 발급 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한편, 2018년을 기점으로 3년 동안 증가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주활동을 못했던 기간(2020~2022)의 영향으로 2022년의 보증발급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2년의 평균 보증료율 0.93%에서 2022년의 평균 보증료율 0.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어느 정도 신용도 및 담보 능력이 확보된 기업 위주로 해외건설 분야에 진출하면서 보증료율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됨

□ 보증료율

○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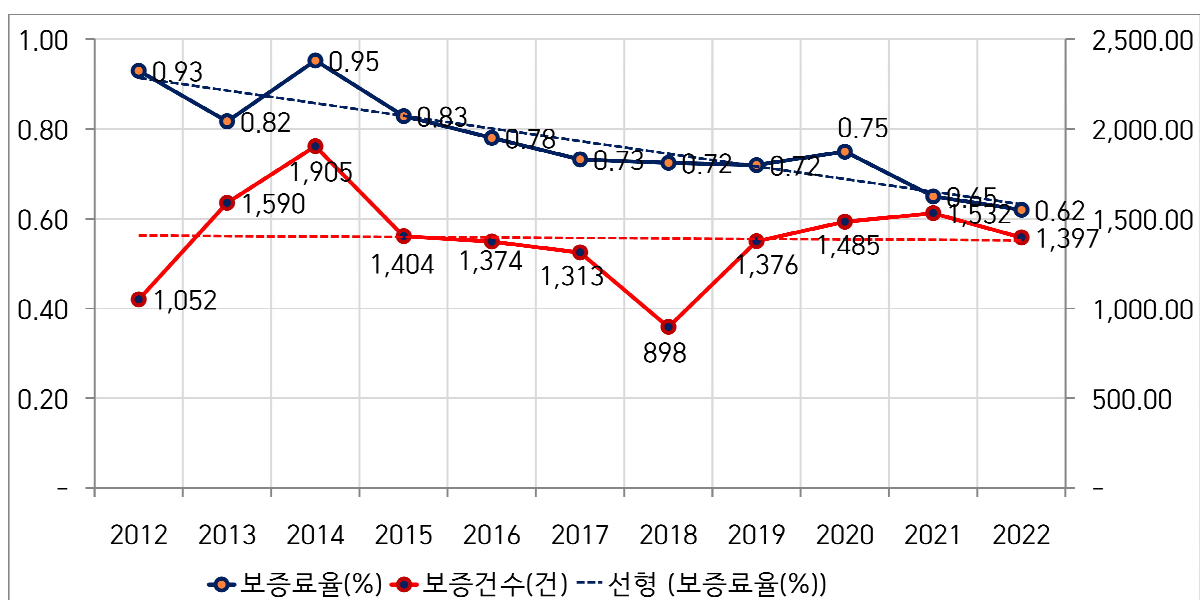
- 보증료율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이며, 보증발급 건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3년 동안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 이후 수주활동 감소가 2022년에 작용하여 보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됨

보증건수 (건)	보증료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Q	중간값	3Q	최대값
15,326	0.77	0.58	0	0.40	0.60	1.00	13.00

○ 연도별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증건수(건)	1,052	1,590	1,905	1,404	1,374	1,313	898	1,376	1,485	1,532	1,397
평균 보증료율(%)	0.93	0.82	0.95	0.83	0.78	0.73	0.72	0.72	0.75	0.65	0.62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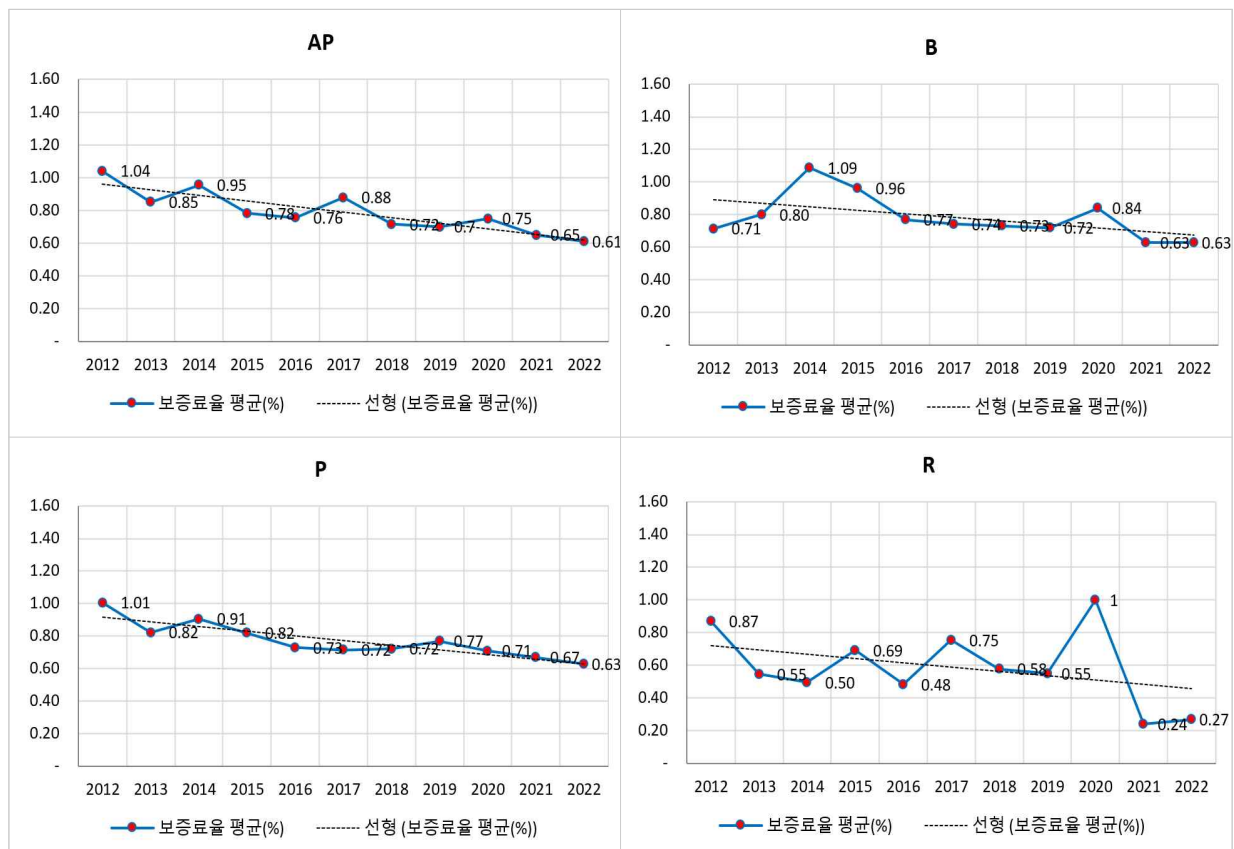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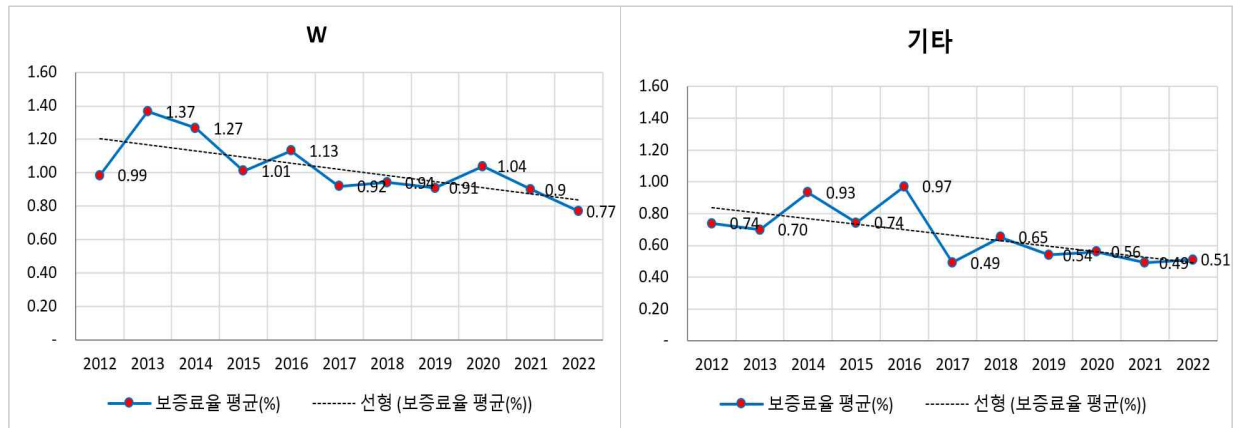
○ 보증서 종류별

- P-Bond와 AP-Bond를 중심으로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고, 대부분의 보증서 역시 보증료율이 전반적으로 하향하여 안정적인

구분	보증건수(건)	평균보증료율(%) (2012-2022)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P-Bond	5,231	0.82	1.04	0.85	0.95	0.78	0.76	0.88	0.72	0.70	0.75	0.65	0.61
B-Bond	1,827	0.83	0.71	0.80	1.09	0.96	0.77	0.74	0.73	0.72	0.84	0.63	0.63
P-Bond	5,886	0.80	1.01	0.82	0.91	0.82	0.73	0.72	0.72	0.77	0.71	0.67	0.63
R-Bond	319	0.56	0.87	0.55	0.50	0.69	0.48	0.75	0.58	0.55	1.00	0.24	0.27
W-Bond	898	1.06	0.99	1.37	1.27	1.01	1.13	0.92	0.94	0.91	1.04	0.9	0.77
기타	1,165	0.65	0.74	0.70	0.93	0.74	0.97	0.49	0.65	0.54	0.56	0.49	0.51

<보증서 종류별 평균 보증료율 추이>





○ 기업규모별

- 대기기업의 보증발급 비율이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90%) 대비 낮은 이유는 국내은행 외에 현지은행 또는 외국계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됨

구분	보증건수 (비율)	평균 보증 료율(%) (2012-2022)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기업	10,341(67%)	0.64	0.76	0.67	0.85	0.55	0.59	0.55	0.62	0.65	0.64	0.59	0.58
중견기업	1,908(12%)	0.90	0.97	0.82	0.96	1.01	0.95	1.22	1.05	0.83	0.82	0.66	0.49
중소기업	2,996(20%)	1.18	1.43	1.16	1.14	1.23	1.24	1.26	1.14	1.07	1.20	1.05	0.93
기타	81(1%)	0.29	0.39	0.43	N/A	0.35	0.29	0.31	0.26	0.25	0.25	0.29	0.29

<기업규모별 평균 보증료율 추이>



- 기업규모별 보증료율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순으로 높아 보통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증료율이 낮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금, 부동산 등 담보나 부보의 요구가 많고, 복보증 형태로 발급하여 보증발급 절차가 길고 보증료 부담이 높은 애로가 있음

○ 보증규모별

- 보증발급은 1천만불 미만인 것이 가장 많으며, 보증료율 역시 이 구간이 가장 높았음

구분	보증건수(건)	평균보증료율(%) (2012-2022)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억불이상	196	0.49	0.50	0.36	0.42	0.60	0.39	0.50	0.62	0.51	0.61	0.44	0.43
1천만불이상 ~1억불미만	1,437	0.50	0.47	0.41	0.42	0.50	0.42	0.52	0.47	0.57	0.63	0.53	0.54
1천만불미만	13,693	0.81	0.99	0.86	0.99	0.87	0.82	0.75	0.75	0.74	0.77	0.67	0.63

<보증규모별 평균 보증료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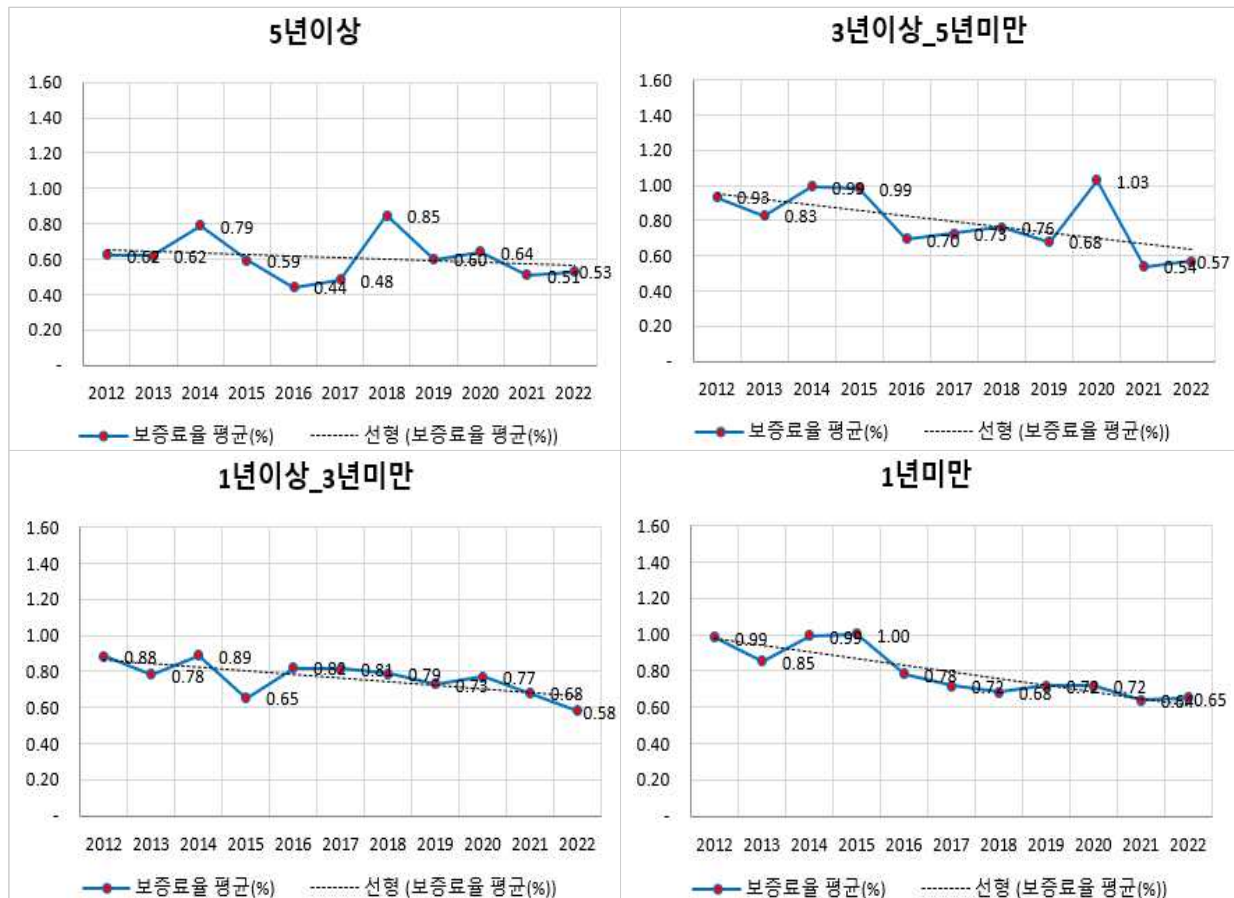


○ 보증기간별

- 보증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년이상~5년미만이 보증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 54%가 P-Bond, 21%가 AP-Bond임

구분	보증건수(건)	평균보증요율(%) (2012~2022)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이상	412	0.60	0.62	0.62	0.79	0.59	0.44	0.48	0.85	0.60	0.64	0.51	0.53
3년이상~5년미만	1,506	0.84	0.93	0.83	0.99	0.99	0.70	0.73	0.76	0.68	1.03	0.54	0.57
1년이상~3년미만	5,411	0.76	0.88	0.78	0.89	0.65	0.82	0.81	0.79	0.73	0.77	0.68	0.58
1년미만	7,997	0.78	0.99	0.85	0.99	1.00	0.78	0.72	0.68	0.72	0.72	0.64	0.65

<보증기간별 평균 보증료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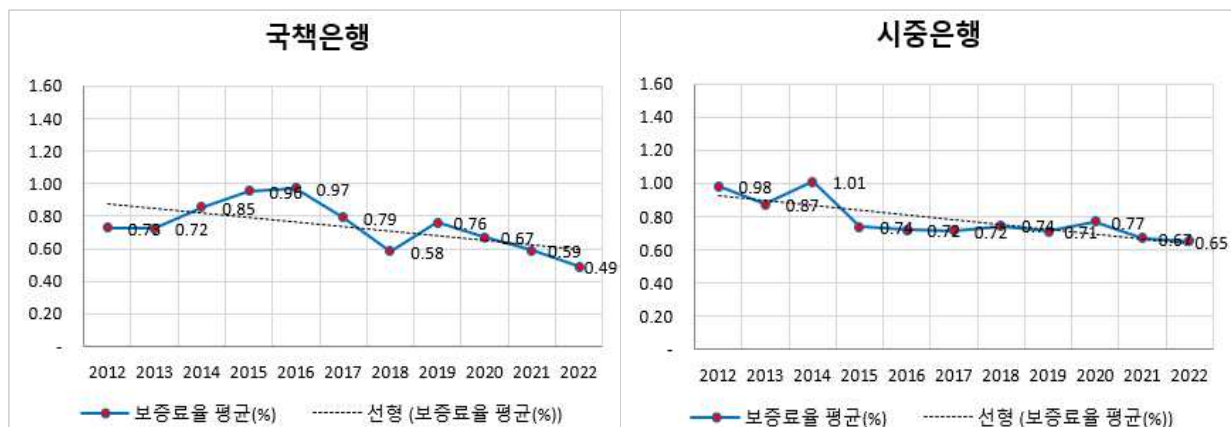


○ 금융기관 성격별

- 평균 보증료율이 국책은행(수은)과 시중은행이 유사한 것은 국책은행(수은)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보증서 지원이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구분	보증건수(건)	평균보증료율(%) (2012-2022)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책은행	4,177	0.81	0.73	0.72	0.85	0.96	0.97	0.79	0.58	0.76	0.67	0.59	0.49
시중은행	11,149	0.81	0.98	0.87	1.01	0.74	0.72	0.72	0.74	0.71	0.77	0.67	0.65

<금융기관 성격별 평균 보증료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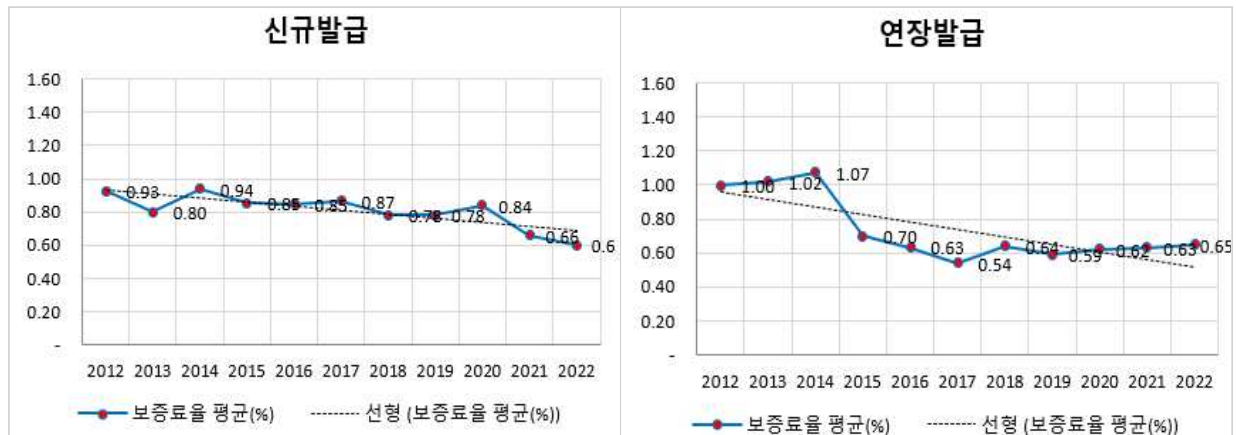


○ 신규/연장

구분	보증건수(건)	평균보증료율(%) (2012-2022)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발급	11,232	0.82	0.93	0.80	0.94	0.85	0.85	0.87	0.78	0.78	0.84	0.66	0.60
연장발급	4,094	0.65	1.00	1.02	1.07	0.70	0.63	0.54	0.64	0.59	0.62	0.63	0.65

- 신규발급시의 보증료율이 연장발급 보다 높게 나타나나, 최근에는 비슷한 수준임

<신규/연장별 평균 보증료율 추이>



□ 담보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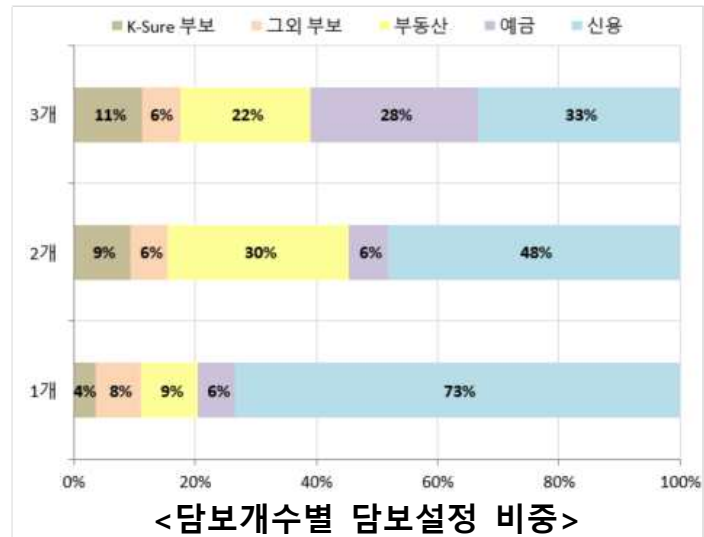
○ 개괄

- 신용을 담보로 보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용한도가 부족할 경우, 부보 및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보증을 발급함.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부보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자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은 예금을 담보로 활용하기도 하며, 필요 시 각 담보를 혼합하여 보증을 발급함

담보구분	보증건수(건)
K-SURE 부보	779
그 외 부보(서울보증보험 등)	1,186
부동산	2,170
예금	1,033
신용	1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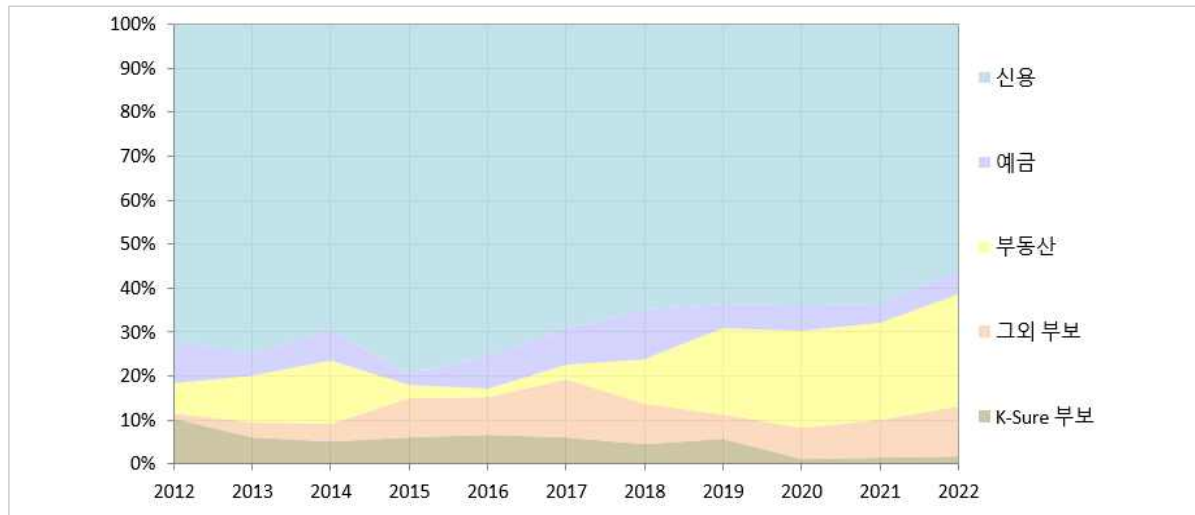
담보개수	보증건수	
	(건)	비중(%)
없음	571	3.73
1개	13,190	86.06
2개	1,512	9.87
3개	53	0.35



○ 연도별 추이

- 최근 2년간 지난 동기 대비, 신용 및 예금 담보가 다소 줄고 부동산 담보가 증가했고, K-SURE의 이행성보증 지원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의 부보 실적이 증가추세임

발급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K-SURE 부보	건수(건)	111	97	103	90	96	83	41	88	21	24	25
	비중(%)	10.45	6.07	5.21	5.94	6.53	6.15	4.65	5.73	1.15	1.36	1.83
그 외 부보	건수(건)	12	55	77	137	130	178	79	84	128	151	155
	비중(%)	1.13	3.44	3.89	9.05	8.84	13.19	8.97	5.47	7.03	8.54	11.33
부동산	건수(건)	70	168	286	44	27	45	90	300	400	393	347
	비중(%)	6.59	10.52	14.46	2.91	1.84	3.33	10.22	19.54	21.97	22.22	25.37
예금	건수(건)	106	78	140	37	111	112	100	89	108	75	77
	비중(%)	9.98	4.88	7.08	2.44	7.55	8.30	11.35	5.8	5.93	4.24	5.63
신용	건수(건)	763	1,199	1,372	1,206	1,107	932	571	974	1,164	1,126	764
	비중(%)	71.85	75.08	69.36	79.66	75.25	69.04	64.81	63.45	63.92	63.65	55.85



III 종합의견

□ 해외건설 보증 관련 정책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이행성 보증서 발급 실태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해외 도급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이행성 보증 문제를 파악한 결과, 기업 군별 현황 및 발급실적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현황을 분석하였음

○ 동 기간 국내은행에서 발급한 총 15,326건*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서 발급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보증료율은 0.77%**이었으며, 보증발급 건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주활동 감소의 영향 등으로 2022년에는 다소 보증발급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통상 도급사업 수주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서는 3건 이상(B, AP, P 등)으로 나머지 부족분은 아마도 현지은행 또는 외국계은행 등을 통해 발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규모별 지난 11년간 **평균 보증료율은 대기업(0.64%), 중견기업(0.90%), 중소기업(1.18%)** 순이었으며, 현지로컬은행이나 부보기관 수수료 등을 통한 **복보증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전체 보증수수료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현실임

- 전반적으로 국내은행을 통한 보증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보증료율 역시 점차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보증발급 애로를 겪는 기업의 수는 감소되는 추세로 보임. 특히 대기업의 경우엔 거의 애로가 없으나, 일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한도 부족 등의 애로는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해외건설 수주가 크게 확대되던 시기(2010~2015)에는 주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진출했던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수요 및 보증애로가 많았으나, 2015년 이후 저유가로 산유국 설비투자 위축, 우리기업의 수익성 위주 선별수주 등에 따라 2016년 이후 ‘300억불/년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진출 기회와 함께 보증수요가 자연 감소함. 이에 전반적으로 우리기업의 보증발급 애로사항도 과거보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다양한 경험과 사업실적 축적을 통해 성장하여 해외사업 보증에 대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일부 해외건설 경험이 부족한 기업(신생, 초도기업 등)의 경우 상담 결과 등을 감안시 보증발급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진출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이행성보증에 대한 지원은 일정부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사실 해외건설 수주 활황기에 도입된 공동보증제도는 참여금융기관의 내부심사기준 상이, 심사에 장기간 소요, 보증한도 규모의 한계 등에 따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 제도로, 현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공동보증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필요시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보증지원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공동보증제도 개요>

참여기관	수은, 산은, 무보, 건공, 서울보증, 전문건공, 전기공사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절차	공동보증기관 약식 검토 → 사업성 평가 → 공동보증 심의위원회 → 발급 (2개 이상 보증기관 참여 시 발급)

- 결론적으로 해외건설 이행성보증관련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처럼 보이나, 여러 변수 즉 건설업에 대한 신용경색 가능성이나 초도진출 기업들에겐 여전히 금융기관 문턱 등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상존함

고로 단기적으로는 해외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성평가를 강화, 개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보증발급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줄여주는 등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성보증 발급 지원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지원 전용 Fund 조성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Bond calling 등 유사시 금융기관을 지원한다거나, 과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사업성평가 수수료에 대한 일부 감면 등을 통해 건전한 해외진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